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손 호 민

(하와이 대학교 동아시아 어문학과 교수)

1. 미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현재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교포 후세 교육, 성인 교육, 정규대학 교육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성인 교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아 미약하다.

글쓴이 1.1. 우선 교포 후세 교육을 살펴본다. 미국에는 현재 110만 명의 한국인이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다. 한국 교민이 많은 중국(약 200만), 일본(약 70만), 소련(약 50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민이 거의 없는 데 반하여 미국에는 매년 3만여 명의 한국인이 새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이민해 오고 있고, 자연 증가율도 비교적 높아서 머지않아 중국 거류 교민 수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한국 교민 인구는 중국계, 필리핀계, 일본계를 뒤이어 아세아 제 4위였으나, 최근 80만인 일본계를 앞질렀고 2030년에는 중국계도 앞질러,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인구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교포 인구의 증가는, 민족적, 경제적, 재정적, 문화적, 외교적 차원에서 볼 때, 침략을 통하지 않은 한국 영토의 확장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증가일로에 재미 교포 [후세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현재 미국 교포 후세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480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주말 한글 학교(혹은 한인 사회 학교라고도 부름.)들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교포 일세 한국인들이 자치적으로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서, 대부분의 학교는 직접 간접으로 한국인 교회에 연계되어 있고 거의 모두가 주말에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한글 학교의 학생은 거의 모두가 한국계임은 물론이다. 그 교육 목표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교포 후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민족의식을 심어 주고 한국 교포 및 부모와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길러 주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며, 나아가 한미 이중언어인으로 양성하여 미국 사회에서 강력하고 성공한 소수민족으로서의 힘을 길러 주자는 것이다.

한글 학교는 미국 40여 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나 한국계 인구 분포와 정비례하여,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시애틀 등 한국인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학생 총수는 3만 명 가량이고 교사 총수는 3천 7백 명에 이른다. 학생의 분포는 유치원생이 21%, 국민학생이 48%, 중학생이 18%, 고등학생이 11%, 그리고 성인이 2%로 집계되고 있어, 국민학교 학생이 거의 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하와이 한인 사회 학교는 한인 기독교 감리교회 내에 있고, 매주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는데 두 시간은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한 시간은 특별 활동으로 미술, 음악, 무용, 체육, 태권도, 학생회 활동 등으로 반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현재 160명의 학생이 10반(초급 4반, 중급 3반, 고급 3반)에 배당되어 10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특별 활동 교사, 임시 교사, 교장, 교감, 서무까지 합하면 교직원 이 모두 22명에 달한다.

1.2.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가시화, 그리고 교포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포 2,3,4세 성인은 물론, 타민족인 미국인 성인들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엿보이고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한글 학교 학생의 약 2%(약 600명)는 성인이고, 또한 대학 부속의 성인반과 주 정부가 보조하는 한국어 학원 등에도 적지 않은 성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대학의 성인반과 주 정부가 돕는 학원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하와이의 경우를 보면, 하와이 대학 부설 성인 학교에 현재 매학기 약 20명이 초급반과 중급반에 등록하고 있어 두 명의 교사가 일주에 각 5시간씩 가르치고 있으며, 주 정부 보조의 가이무키 한국어 학원에는 평균 약 15명의 하와이 성인이 항상 수강하고 있어 한 명의 교사가 주당 5시간씩 초급반만 가르치고 있다. 이 가이무키 학원의 현재 15

명의 학생은 일본계 12, 한국계 1, 중국계 1, 백인 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일본계 학생의 상당수는 한국과의 무역에 종사한다고 한다(동 학원 교사 윤수아 제보).

1.3. 정규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현재 미국의 30여 개 종합대학교의 크고 작은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실시 중이며 학생 총수는 한 학기에 약 2,300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아시아 어문학과 내지는 아시아 학과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학과는 반드시 보다 더 큰 일본어와 중국어 프로그램이 병존하고 있다. 기존 한국어 프로그램은 확장일로에 있고 몇몇 큰 대학은 새로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 30여 대학 중 매학기 한국어 과목 수강생이 비교적 많은 대학은 국방외국어대학(한 학기 약 500명), 부리검영 대학(250명), 캘리포니아 대학/로스앤젤레스(250명), 하와이 대학(100명),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100명), 남가주 대학(100명), 일리노이 대학(100명), 컬럼비아 대학(100명), 워싱턴 대학(100명), 조지 메이슨 대학(100명), 인디애나 대학(70명), 하버드 대학(65명), 시카고 대학(60명), 뉴욕 주립대학/스토니 부룩(60명) 등이다. 이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방외국어 대학은 군사상의 목적으로 군인들에게 하루에 6시간씩 47주간의 초급반과 47주간의 중급반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어 전임 강사만 해도 1989년 현재 100명에 달했다. (최근 국방 예산 삭감으로 다소의 감원이 있었다 한다.) 학생이 많은 부리검영 대학은 주로 물문교 선교와 관련하여 한국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어 지원 학생이 너무 많아 엄선하여 수강케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로스앤젤레스는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이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학생 수로 보아 일반대학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즉 한국인 인구 50만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입지 조건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속한 대학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진과 교과과정면에서 가장 건실한 한국어 프로그램은 하와이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연구에 최대의 역점을 두는 대학 방침의 덕택으로 19년 전에 대학 안에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언어학, 문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망라한 한국학 전문교수가 20명에 이른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어문학과와의 세 분

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세 언어 분과에는 각각 어학과 문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분과는 언어 훈련, 언어학, 문학의 과목을 세 명의 전임 교수와 두 명의 시간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와 중국어 분과에 비하면 아직도 열세인바, 일본어 분과는 30명의 전임과 매학기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수강하고 있으며, 중국어 분과는 10명의 전임과 매학기 약 250명의 학생이 있다.

미국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의 학생 인증 분포를 보면, 국방 외국어 대학과 부리점영 대학의 학생이 거의 전부가 비한국계 미국인인 데 반하여, 그 외의 일반대학에서는 수강 학생의 50% 내지 90%가 한국계 학생이다. 대체로 초급반에서는 50% 편에 가깝고 고급반으로 올라가면 90% 쪽에 가까워진다.

2. 한국어 교육의 성장 배경

이상과 같이 수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과거에 비하여 기적적인 성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15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정식 한글 학교가 10개도 안 되었고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도 10개 대학 정도가 풍전등화격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20년 전 필자가 하와이 대학에 부임했을 당시 한국어 프로그램은 실로 한심스러울 정도였다. 초급반에 학생이 겨우 5, 6명이었고, 중급, 고급반에는 고작 한 명 내지 다섯 명 정도였으며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과목도 더러 있었다. 이런 상황은 그 후 10년간에 약간 호전되었는데, 특히 과거 10년 동안에는 학생 수는 물론(현재는 초급반 30명 정도, 중급, 고급 모든 반에 10명 이상) 교과 과정도 크게 확장되어 많은 과목이 신설되었고 박사 과정까지 생기게 되었다. 미국 전체의 교포 후세 교육이나 대학 교육에서 단시일 내에 이런 놀라운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또는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다음 네 가지 점을 들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의 한국인 인구의 급증가와 한국의 국력 신장은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려는 미국 정부의 대내 대외의 정책 변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1964년에 인권법을 제정, 인종과 출신 국에 의거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불법화하였고, 1968년에는 이민법을 개

정하여 동양인 이민을 제한하던 종전의 조치를 철폐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의 대량 이민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각 소수민족이 종전의 동화의 의식에서 벗어나, 민족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카터 행정부는 미국인의 외국어 능력 부족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탄하고, 1978년에 대통령 산하에 외국어 및 국제연구자문위를 설치하여 미국 시민의 외국어 능력과 외국어에 대한 지식의 증진 방안을 제안토록 하였다. 이 자문위의 여러 건의에 따라 연방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외국어 교육에 할당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이 이 자금으로 학생과 교수의 훈련 및 해외 파견,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 교재 편찬, 세미나 개최, 하기 학기 보조, 언어 능력 테스트 보조 등 다방면의 외국어 교육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국방 예산으로 국방 외국어 대학과, 하와이 대학 등 일부 일반 대학의 하기 학기를 이용하여 군인들에게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를 습득한 군인들은 제대 후에도 한국 관계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한국학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향이 크다. 과거 미국 정부가 한국에 파견했던 많은 평화봉사단원도 현재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한국 관계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로, 이민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인의 대량 이민을 들 수 있다. 15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한국인 인구가 겨우 15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7.5배인 110만이다. 한글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이 한국계이고 일반 대학의 50% 내지 90%가 한국인임을 감안할 때 이민 인구 증가와 한국어 교육의 양적 성장간의 상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미국 사회에서의 근면, 교육열,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 성공은 한국, 한국인, 한국어, 한국 문화를 가치화시켜, 한국계는 물론 상당수의 비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어 습득에 열중하게 되었다.

셋째로,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한 국력의 신장, 민주 발전, 올림픽 개최 등으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급진적으로 가치화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국력의 신장과 외국어 습득의 필연적인 상관 관계는 현 국제 사회에서의 영어와 일본어의 광범위한 보급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한국은 기적적인 발전으로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고, 한미간의 무역, 경제, 문화, 정치, 학문 등의 교류가 급진전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려는 심리적, 학문적, 교양적 동기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던 1965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인임을

스스로 밝히기를 주저하고, 자신과 자녀들의 미국 사회에의 조속한 적응 내지 동화만 안중에 있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한국 인임을 내세우고 있고 일부 이민 학부모도 서서히나마 자녀들의 이중언어 구사의 실리와 중요성을 깨닫고 한글 학교에 보내려는 풍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국력 신장의 고마움을 통감하게 된다.

넷째로, 한국 정부 당국과 그 산하 단체 및 각종 학회, 그리고 한국 내 여러 대학이 교포 한국어 교육 및 해외 한국학 발전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위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원 기관으로는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국제 문화 협회, 정신 문화 연구원 등을 들 수 있고, 신설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이 방면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필자는 고대한다. 대학으로는 서울대학의 재외 국민 교육원과 어학 연구소, 연세대학의 언어 교육원, 이화대학, 고려대학, 외국어 대학, 서강 대학의 하기 학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학교의 외국인 교포 학생들에 대한 현지 교육은 미국의 한국어 교육에 직접 간접으로 공헌하는 바 크다. 또한 학계에서도 국제 한국어 교육 협회, 이중언어 학회, 국제 한국어 학회 등이 대회와 학회지를 통하여, 한국어 학자들, 교육자들의 연구 결과와 경험의 상호 교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의 주된 배경 외에도, (가) 중국학, 일본학의 발전과 병행하여 동아시아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한국학에 대해 학문적 관심이 높아져 간다는 사실이나, (나) 하와이 대학, 국방 외국어 대학, 부리점영 대학처럼, 대학 당국의 방침으로서 한국학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애로점과 희망 사항

이상과 같은 한국어 교육의 양적 급성장과 아울러 야기되는 애로점도 적지 않다. 이들 애로는 대체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많은 애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문제점만을 골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계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의 유발 문제일 것이다. 한글 학교 학생들은, 물론 예외도 많지만, 대체로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입학하게 되므로 학습열이나 동기가 부족하다. 또한 하와이의 경우를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모들은 어떤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자녀들을 학

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맡긴다는 심리가 더 지배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에서는 떠들기 일쑤이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발적으로나 부모의 도움으로나 복습, 예습, 숙제 등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심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들에게는 학습 진행 중 계속 흥미와 보람을 느끼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시청각 교육, 놀이나 음악, 음식 등을 통한 언어 교육 등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하여 학습 동기를 개발해 주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물론 연례행사로의 학예회, 체육회, 백일장, 소풍 등이나, 학과목으로서의 연극, 시 낭독, 고전 무용, 음악, 태권도 등을 통하여 학교마다 그 나름대로 학습 동기 유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재 미비, 교사의 능력의 미흡, 예산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소기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들을 향해서는, 한국 프로 텔레비전, 한국어판 신문, 라디오, 전단 유인물, 강연회, 교회 모임 등을 통하여 자녀들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의 중요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즉, 어려서부터 민족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 줘야 나중에 미국 사회 주류로부터의 소외감 내지 아이덴티티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 부모와의 공통성을 유지하는 길은 부모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 이중언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 이중언어 이중문화인은 두뇌가 더 개발된다는 것, 이중언어인은 실용적, 직업적, 학문적, 심리적, 문화적 이득이 지대하다는 것 등을 홍보해야 한다. 한편, 성인 교육에 있어서는 동기 유발의 문제가 없다. 동기가 강한 사람들만이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한국어 교실에는 상당수의 한국계 학생들이 별반 동기 없이 쉬운 점수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일단 들어온 이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이중언어의 필요성과 유의성을 주지시키면서 질 높고 흥미 있는 영화, 문화 소개의 비디오, 슬라이드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지금 극히 소규모로 실시되고는 있지만, 한글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한국을 방문하여 최근의 발전상을 견학하게 하고 단기로 현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최상의 동기 유발책이라고 본다.

둘째 문제는 교사에 관한 것이다. 대학이나 성인 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나, 많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국어학이나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체

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어떤 교사는 영어에 능통치 못하고 미국 문화나 사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또는 학교 자체가 주관하여, 세미나나 워크숍을 마련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사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보수가 대체로 박하다는 점이다. (하와이의 경우 시간당 \$10) 교사들의 질과 사기와 열의를 높이려면 만족스러운 보수의 지급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학생의 수업료(현재 하와이의 경우 월 \$30)를 올리고 기부금에 호소하기를 바란다. 교사의 처우 개선은 유능한 교사의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 한글학교 교사의 사기를 복돋는 방안으로, 지금 한국정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전학 계획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제는 교과서와 시청각 교재 개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과서는 대체로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반 비판적인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와이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미교육연구소 발행의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발행의 국어 교과서가 오지만 미국 발행의 교과서보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리고 한글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영사관 대여의 전통 문화나 한국 소개의 필름은, 대체로 교사나 학생이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며, 한국이 '멋있게' 부각되고 학생들의 뿌리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흥미진진한 영화나 비디오가 한국에서 새로이 제작되기를 일선 교사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현존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그 개선책이 제의되고 있다. 어떤 교과서는 지나치게 분석, 읽기, 번역 위주이고 다른 교과서는 지극히 회화 중심적이다. 초급, 중급, 고급에 따른 어휘 선정, 한자 선정, 발음법과 철자법, 문법, 사회 언어적 측면, 화용적 사항, 주제의 선택, 문화적 사항, 작문, 연습 문제, 시험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이 교과서 개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언어 훈련용 교과서뿐 아니라, 외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법, 언어와 문화 교본, 상급 독본, 작문 교본, 수권의 문학 교본의 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비디오를 통한 회화 교육과 문화와 습관 예절 등의 교육이 요청된다. 또한 교육적이면서도 흥미 있는 단편 영화를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선정하여 미국의 대학 교실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문제는 수업 시간에 관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글 학교는 시설

이나 예산 등 여러 제약으로 주말 하루만 2시간 내지 3시간씩 운영되고 있지만, 이 시간 수는 너무도 적고 또 6일간의 공백 때문에 공부에 계속성이 없게 된다. 오히려 주중 5일을 매일 방과 후에 수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와이의 일본어 학교 30개교(학생 총수 약 3,000)에서는 거의 모두가 주중 5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 어느 정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론 정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 사회의 강력한 여론 환기가 있으면 각 교육구에서 서슴지 않고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한국인 사회가 큰 곳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하와이에서는 거의 모든 정규 중고등학교가 일본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4. 전 망

필자는 미국의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의존 관계의 증진, 한국계의 급속적이며 계속적인 인구 증가, 한국계의 성공적 이민으로 인한 미국 사회에서의 가시화 증가, 재미 교포의 이중 언어와 민족적 동질성의 중요성 인식, 한국의 계속적 발전, 미국 정부와 사회의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한국 정부와 여러 산하기관의 지원, 한국과 미국의 많은 대학의 열성적인 한국어 교육 실시, 각종 학회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양과 질의 양면에서 더욱 성장하려면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자, 학자, 학부모, 재미 한인 사회의 유지, 한국 정부 당국과 민간 단체 등 모두의 지혜와 지원이 아낌 없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